

토양유실 방지용 경사밭 가장자리 옥수수 파종 권장

» 배경 및 필요성

- 강원도의 표고 400m 이상 밭 면적은 32천ha로 전국 고랭지 면적인 38ha의 84.4%를 점유하고 있으며, 표고 600m이상의 고랭지 면적은 98.9%를 차지
- '06년 소양댐 탁류발생시(7월 집중호우시) 농경지(밭)에서 토사 유입량은 전체 19억톤 중에 약 21로 추정('07. 강원대)
- 현재 고랭지 경사밭을 대상으로 토양보전을 위하여 동계피복작물 종자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하계 작물재배시 가장자리까지 경운하여 피복작물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음

» 제안 내용

- 경사밭 가장자리에 옥수수 재배로 고랭지에서 토양침식이 가장 심한 장마철(7월 하~8월 상)에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음
 - 콩은 7월 중순 이후 토양피복율 90%이나 장마철 나지비율이 높음
 - 옥수수는 6월 하순 피복율이 80% 이상으로 식물체 간장이 길고 잎이중첩되어 토양보전 효과 큼
- 옥수수 종자 및 파종비용 지원
 - 고랭지 작물 재배시 경사밭 가장자리에 옥수수를 9월 말까지 존치

»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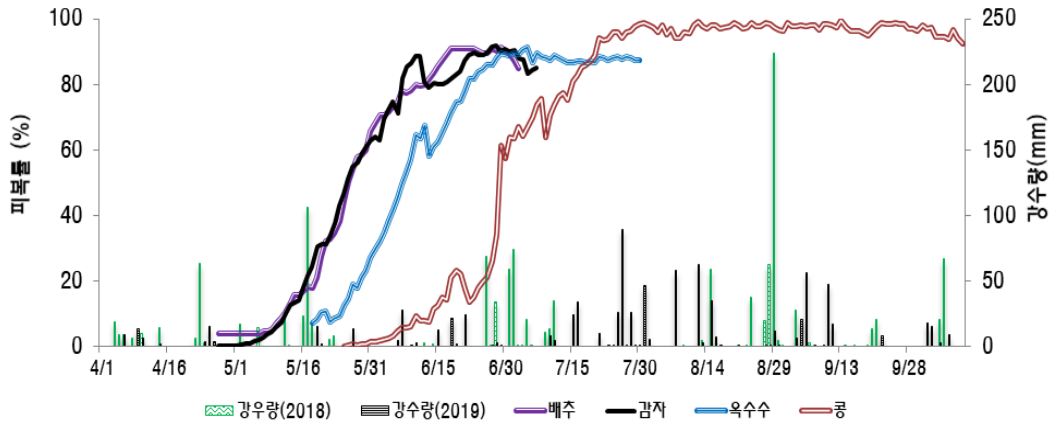
- 경사밭 가장자리에 옥수수 재배로 기존 초생대 조성과는 다르게 농가에서 상품판매의 직접적인 소득과 농지보전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

» 건의부서

- 강원도청 농정국 친환경농업과

<세부 연구결과>

- 시기별 작물별 토양피복률의 변화(2019, 춘천 유포리)



- 시기별 작물별 토양침식량의 변화(2019, 춘천 유포리)

